

특별기고

경기도(가칭)신설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⑧

북부지역 징수 도세 1조2천억, 도 지원금 7천7백억으로 4천8백억 미환원



김정완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V. 분도에도 따른 충분조건

1. 자주 재정력

경기 북부지역 분도 신설의 찬반에 관한 쟁점 중에서 북부지역의 재정력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북부지역은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에 있어 취약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치단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반대론은 북부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부지역의 세수를 북부지역에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찬성론자들은 북부지역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에 있어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도가 되는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북부지역의 재정현황을 평가하고자 한다.

1)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

10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경기 북부지역의 2007년 예산 기준 재정 규모는 4조2천억원으로 전국 시도 재정규모 중에서 분침분을 제외한 평균인 3조6천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5조8천억원)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보다 큰 규모이며, 도의 경우에도 충청도(3조3천억원)나 제주도(2조3천억원)보다 크며 강원도(4조4천억원)나 전북도(4조7천억원)와 비슷한 규모를 보여 주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도 36.6%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50.5%)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국 평균(27.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남부지역 세수의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

분도 반대론자들은 현재 남부지역에서 징수한 세수에 의해 북부지역에 지원되기 때문에 북부지역이 분도되는 경우 재정력이 취약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는 도세 7개, 시·군세 9개 총 16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군세는 시·군의 자체수입으로 운용

되고, 도세는 도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정 비율을 시·군에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도의 지원금은 재정보전금·도보조금·징수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남부지역의 세원이 북부지역에 지원되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의 도세 징수액과 북부지역에 대한 도의 지원금의 규모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2005년 기준 북부지역에서 징수되는 도세(공동시설설 제외)는 1조2천억원이지만 도 지원금은 도세 징세액의 61.91%인 7천7백억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4천8백억이 환원되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에서 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만이 도세 징수액보다 더 지원받고 있을 뿐이다. 물론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도세 징수금의 전체가 아닌 일정비율만이 환원되고 있다(49.34%). 그러나 적어도 남부지역의 재원이 북부지역에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현재 도지원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재정보전금과 징세교부금은 관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도가 된다고 해도 분도청이 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에

대해서는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게 되어 이들 시군은 별다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도지원금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도지원금은 시군간 재정자립도의 형평성과는 관계없이 운용되어 왔다. 따라서 경기도청이 운용하는 도지원금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경기북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분도가 되는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각 시군이 지원받은 재원에는 변화하고 없고, 추가적으로 경기도청(본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경북도와 유사한 인구규모와 행정수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도 2005년 기준 연 2조(지방교부세 515백만원, 국고보조금 1,409백만원)를 더 지원받게 된다.

이에 반해 10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는 변화가 없다. 국가와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관계법령에 의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면 된다. 일부 북부지역 중에서 잘사는 지역(고양시)은 분도가 되는 경우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⑬

독일 생태마을 제그(Zegg)의 사례에 대한 사유



공명수 교수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제그 생태마을이 70년대 초부터 생태적 삶과 문화의 실험을 위해 구성되었지만 이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해는 1991년이다.

독일어로 '실험문화실현센터'(Zentrum für Experimentelle Gesellschafts Gestaltung)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생태마을은 독일 베를린 남서쪽에 시 80km 정도 떨어진 휴양도시 뱌치히시 인근에 위치해 있다. 독일어로 '이름'을 모를 야생초들이 만발한 이곳은 15ha(15만 m²) 정도의 면적에 100여명의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특히 제그 공동체는 분단의 아픈 역사를 안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 지역은 동독의 국가정보원 특수교육 기지로 활용되던 곳이었으나 이 공동체 입주자들이 통통 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분 근처의 다른 공동체의 자유학교(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일부는 대안학교 입학은 거부하고 인근 마을의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다. 유치원생들의 경우 제그 공동체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돌본다.

물론 이들은 방학 중에는 정체성을 달리 하는 주변의 다른 공동체들과 자녀교육을 포함하여 생활과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상호 간에 긴밀하게 교류를 나눈다. 그리고 27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공동체 회의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들은 작은 규모의 캠프를 자주 운영하고 있지만 큰 규모의 워크캠프(Work Camp)를 일년에 네 번 열었다. 거주인들은 겨울에는 자신들끼리 원활한 대화를 통해 내부결속과 공동체의 비전을 다지고, 여름에는 캠프를 통해 외부 사람들과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내면과 삶의 경험들을 교류한다. 이들 중에는 다른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결혼도 하며, 이를 계기로 공동체를 옮겨가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제그 공동체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공동체의 한복판에 위치한 '캠퍼스'라고 부르는 원형공간이다. 공동체의 주요 시설물인 식당, 책방, 어린이집, 수영장, 캠핑장에 의해 에워싸여 있는 지름 30m 정도의 이 원형공간에서 구성원들은 특정 종교나 이념에서 벗어나 사랑과 삶과 문화와 자연에 대해 깊이 명상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한다. 공동체 자체에서 기획한 캠프 프로그램으로는 자연과의 친교, 명상, 육체노동,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형성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영감교육의 핵심은 거주인과 방문자가 동시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명상체험이다. 거주인들은 방문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을 반추하고, 방문자들은 정주인들의 입장에서 삶의 소중한 경험을 체득한다. 이곳에서는 내부인이 외부인이 되고, 반대로 외부인이 내부

인이 되는 안과 밖이 교차되는 내재적인 삶이 실현되고 있다.

제그 공동체에서 거주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면서 찾고 싶어 하는 삶의 원형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다. 이들은 명상을 통해 자연과 소통할 때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으로 회귀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삶에 대한 고정된 방식과 답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만든 제도와 관습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성의 힘을 의식의 소산물이라 여기고 영성을 통해 자연의 본모습으로 다가가려 한다. 이들이 갈망하는 영성의 힘은 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오로지 명상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제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사람에게 한 가지 역할만 부여하는 데 있다. 제그 공동체에서는 남녀간의 관계나 세대간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한다. 이 공동체 내에서는 거주인들끼리 이성간의 자유로운 동거와 이별을 열어 두고 있다. 여기에는 사람이 개인의 진정한 자유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변화의 핵심 주체이다. 이들은 사람이 결코 남성과 여성 두 사람만의 관계라고 여기지 않는다. 자연히 이들은 사랑의 올바른 답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도적 사랑을 반대한다. 이들에게는 제도적인 사랑이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근원적 가치,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다. 제그 공동체의 거주인들에게는 상호 간에 영성적인 신뢰가 구축되면 사랑에 대한 경계장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들은 개인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통해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제그 공동체의 거주인들은 내적인 마음의 안정이 외적인 삶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고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에 의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교육에세이 93

2025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획기적인 핵심 기술



이호원
영광대학교 교장

필자는 최근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송암천문대를 견학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랐던 추억에 맞설려 주겠다는 설립자의 설립취지가 우선 마음에 와 닿았다.

이곳은 우주에 관해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해발 445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천문대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제일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로봇의 공연이다. 물론 센서에 의해 움직이기는 하지만 음악에 맞추어 여러 대의 로봇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특히 균형을 잘못 잡아 넘어진 경우에는 스스로 일어나는 실로 로봇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값의 양태도 혁명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외국에 있는 가족과 인터넷의 도움으로 전화료 부담 없이 화상전화를 하고 있는 시대이다. 몇 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획기적인

정보통신의 발달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10년 내지 15년 후의 우리는 어떤 삶을 영위하게 될까?

기존의 기술을 일거에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기술을 '현상 파괴적 민간 기술(Disruptive Civil Technologies)'이라고 한다. 금속인쇄술, 증기기관, 자동차, 전화, 나일론, 컴퓨터, 인터넷처럼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꾼 기술들은 본질적으로 '현상 파괴적 민간 기술(Disruptive Civil Technologies)'에 해당한다. 최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2025년 미국 경쟁력에 파급효과가 막대한 기술을 선정하여 '현상 파괴적 민간 기술(Disruptive Civil Technologies)'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현상 파괴적 민간 기술(Disruptive Civil Technologies)'로 선정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가정에서 자녀교육이나 교육현장에서 진로 교육,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는 2025년 미국의 '현상 파괴적 민간 기술(Disruptive Civil Technologies)'로 여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생물노화 기술은 인간의 생리학적 노화 과정을 연구하여 평균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고 했다. 인간 게놈지도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의 수명은 획기적으로 연장될 것이 확실하다. 둘째, 에너지 저장 소재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소재와 관련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수소 저장 소재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미국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증진 패러다임에서 수소 기반 경제로 바꾸어 놓는다. 고 했다. 인공태양을 제조하여 활용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에너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셋째, 생물연료 및 생물 기반 화학은 동·식물로부터 연료를 추출해내는 기술이다. 생물연료는 화석연료의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서 석유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 기대 된다. 고 했다. 육수수를 이용한 연료를 추출해서 대중교통의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프로젝트도 충분히 실현성이 있다.

넷째, 청정 석탄 기술은 석유나 천연가스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훨씬 많은 석탄을 환경 친화적인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4개국 석탄 매장량은 전 세계의 67%를 차지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석유 기반 경제를 100~200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이산화탄소(CO₂)로 보고 고도 의정서에 의해 이산화탄소(CO₂)의 발생량을 줄이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정에서 밤 하나에만 불을 켜고 지낸다면 세대 당 줄어드는 이산화탄소

(CO₂) 양은 연간 238kg이며, 약 8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이 훨씬 많은 석탄을 환경 친화적인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이 등장한다면 이 또한 '현상 파괴적 민간 기술(Disruptive Civil Technologies)'에 포함된다.

다섯째, 서비스 로봇은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공존하며, 사람을 도와주거나 사람의 능력을 심본 활용하는 데 도구를 이용하는 로봇, 곧 개인용 로봇이다. 2020년경부터 서비스 로봇이 미국 가정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개막된다. 고 했다. 눈부신 로봇기술의 발전을 감안하면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기술 분야이다.

끝으로 만물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지구가 전자 피부로 뒤덮인다는 개념의 기술이다. 이러한 원격 측정 시스템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구의 피부 또는 신경계의 역할을 한다. 전자 피부의 세 포들이 원격 감지한 정보를 처리하고 소통시키는 뼈대는 인터넷이다. 고 했다. 인터넷은 이제 삶 자체이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원터링' '원터링' 시대가 도래되어 인터넷 전 입신고 한번으로 舊전화번호 착신통화 신청 전화 수속까지 일괄 처리되고, 휴대폰을 식품에 대한 생산자 정보, 유통경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인터넷이 삶 전체를 대변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새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

기축년(己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8년 한 해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포천신문 창간1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주셔서 축하와 더불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포천신문 임직원은 포천의 정론지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포천신문 대표 이사 최호열
-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이보용
-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박승찬
-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장 김기정
-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 박혜자
-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박노실
- 포천신문 노인명예기자단장 남충현



포천신문 임직원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생명예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



노인명예기자단